



• 국방시설본부의 시험실을 방문한 안무영 전문위원이 노창근 국방시설본부 부이사관(사진중앙)으로부터 시험설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드높은 자부심으로 만드는

선진강국의 힘!



국방시설본부
Defense Installation Agency

세계는 경제, 문화, 자원을 따라 국경을 넘어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軍은 국가 최전방 수호자이자 국가경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학군 46기 임관식에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었으며, 군을 감사하고 존중하며 아끼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였다.

최강의 군대는 강력한 무기체계가 전부가 아니며 최고의

자부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에 최강의 무기체계와 자부심을 불어넣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국방시설본부를 꼽을 수 있다.

국방시설본부는 2004년 국방부 직할 부대로 창설되어 국방개혁의 변화와 혁신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국방시설 사용부대를 고객으로 재인식해 창조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 '고객 감동의 시설건설'을 모토로 매년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그간 국방시설본부가 추진해온 업무는 길지 않은 역사임에도 공사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Pre-Con 제도 활성화, 3Phase Inspection 적용 등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면 열악했던 장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무생활관의 사적·공적 공간 확보와 설계 VE 활동을 통한 개선 및 예산 절감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방시설본부의 역사는 1959년 창설된 국방건설본부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1971년 창설된 조달본부 시설부로 유지되다 지난 2004년 국방시설본부가 창설되며 현재의 건물로 자리 잡았다. 군 숙소/국방부신관의 국방시설사업단과 대미사업/공여재산관리의 용산사업단, 조달본부 시설부로 유지되며 현재는 국방시설본부와 평택미군기지가전사업단이 2006년 7월 분리되었다.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는 각군 50억원 이상, 국직부대 10억원 이상공사 (병영생활관, 신영, 군용시설이전, 방위력 개선사업)과 CDIP(Combined Defence Improvement Project) LPP사업(Land Partnership Plan)시설사업의 집행관리를 비롯해 BTL사업지원, 설계시공안내서 작성, PQ 심사, 공사감독업무와 대미사업, 주한미군 공여재산 관리,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 위임 및 지원과제 수행, 기지이전지역 부지매수/주민이주사업(평택지역 제외), 반환기지 환경조사/치유, 매각업무, 군 시설물의 구조안전 점검/진단, 건설시험지원, 건설기술교육 시행, 신기술/우수제품 검토 및 적용을 들 수 있다.

특히, 군 시설 안전점검 업무는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의 붕괴로 시설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정성 점검과 재해의 사전예방책으로 군 시설 안전점검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는데 95년 7월 군 시설 안전점검이 시행된 이후 97년 1월 안전진단 점검 기구 설치 운영을 통하여 군내 유일의 업무수해 조직으로 발전하여 왔다.

안전점검은 군 노후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

에 대한 안정성 조사, 분석, 평가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요군 요청의 증가 및 국방부의 군 BTL 사업추진을 안전점검 업무량의 현저한 증가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진단의 2개 팀 운용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외주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유 장비의 (철근 탐지기 등 31대) 현대화를 통하여 수행 업무의 정밀도·신뢰도 향상에 적극 경주하고 있다.

★ 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가. 안전점검/진단업무는 유사시 인적/물적 피해가 수반되는 특성상 업무 수행상 담당자의 전문지식, 숙련된 기술, 보유장비의 정밀성 등이 그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업무이다.

나. 따라서 안전점검/진단 전문기관 법적충족 인원의 보직과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가 충원 등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 향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주기적인 업무교류와 전문교육 이수 등으로 명실상부한 군내 유일의 안전점검기관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각종 시험장비가 최상의 상태로 운용되고 있는 시험실

라. 품질시험업무(토질, 재료시험)

★ 목적 및 추진배경

건설시험과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국·공립 시험기관으로서 전군의 품질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각종 시설자재 품질시험, 토질의 물리적 및 역학적 시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초 지반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추진경과

- 가. 토질시험은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품질 향상, 경제적, 내구적인 목적물 완성을 목표로 설계·시공을 위한 기초지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료시험은 공사 사용자재 시험 및 품질관리 적정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나. 토질시험은 설계·기초시공을 위한 현장시험으로 표준 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등의 지내력시험과 액·소성 한계, 흙다짐 등 흙의 역학적 시험을 수행하였다.
- 다. 재료시험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철근 인장강도시

험, 기타 건설자재에 대한 선정·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였다.

- 라. 주요 시험장비에 대한 노후교체 및 부족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추장비탐재차량(5톤), 만능재료시험기(5톤, 100톤)등을 제작·인수하여 각종 시험간의 정밀도 향상과 시험결과 신뢰도 증진에 주력하였다.

★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가. 토질 및 재료시험인 시험비의 설계 용역비, 도급공사비의 반영과 인근 공인시험기관의 활용 등으로 점차 시험 건수의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연간 10%).
- 나. 이에 따라 기존업무의 지속수행은 물론 부대구조, 건설 환경의 변화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반영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도 연구발전 시험품목 확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다. 향후 수요군 요청시 업무의 적기수행과 함께 노후 및 부족 장비에 대하여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노력과 건의로 교체, 도입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시킬 계획이다.





강한 軍隊는

우수한 軍 시설이 함께해야

윤 종 식 국방시설본부 이사관

우리나라의 경제가 6.25 전쟁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 같이 건설 분야도 전쟁이후 빠른 속도로 현대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 중 주한미군으로부터 습득한 기술과 이전받은 장비를 바탕으로 중등건설 붐을 통해 건설 분야의 현대화는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우리의 건설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달성해 초대형 건축물은 물론 세계 최고층의 건축물도 우리 업체가 시공하고 있을 정도의 기술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이후 황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교육열로 이제 선진국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어머니들의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높은 교육열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양성은 우리나라 특유의 풍습으로까지 비쳐지곤 한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급격히 좋아지며 우수한 수준의 인적자원이 과거에 비해 군을 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나는 군 시설이 사회 시설의 현대화에 뒤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현실이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군 인력이 생활하는 주거 여건이 아직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낙후되어 있어 그러한 현실은 군으로의 우수인력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닌지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과거 춥고 배고팠던 시절에는 군이 상대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었으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떨까? 비슷한 교육을 받은 비슷한 나이의 주변사람 혹은 동창등과 비교해보아도 군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할뿐더러 잦은 근무지의 변동은 물론, 거주 여건도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고 우리 스스로 나의 아들딸에게 군 직업을 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강한 군대는 강력한 무기체계 만으로 형성되지 못한다. 강한 군대는 강력한 무기체계에 견줄 만한 우수한 인적자원과 그들을 편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현대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 국방시설본부는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나가야만 할 것이다.